

# 2014 교사용 지도서

특별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2014.7.17~11.16

---

책임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지영

발행일 - 2014.8.30.

발행처 - 백남준아트센터

446-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031-201-8500, [www.njpartcenter.kr](http://www.njpartcenter.kr)

## 목차

- I. 전시 개요
- II. 단체 관람 안내
- III. 전시 연계 프로그램
- IV.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 V. 참고자료



본 교재는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의 전시관람 및 감상지도를 위해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단체 관람에 대한 안내, 전시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 연계된 간단한 설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배포되고 있는 리플렛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 01 전시 개요

##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전은 1984년 1월 1일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된 기념비적인 텔레비전 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서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들을 소개 할 뿐만 아니라, 원격 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명암을 주제로 하는 현대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이다.

조지 오웰은 1949년 원격 통신과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된 암울한 미래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발표하면서 1984년이 되면 매스미디어가 인류를 지배하리라는 비관적인 예언을 하였다. 백남준은 이 예언에 대해 “절반만 맞았다”고 반박하며 예술을 통한 매스미디어의 긍정적 사용을 보여주기 위한 위성 텔레비전 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하였다.

1984년 1월 1일, 위성을 이용해 뉴욕(정오)과 파리(오후 6시)를 실시간으로 연결한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위해 4개국의 방송국이 협력했고 10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대중예술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 미술, 퍼포먼스, 패션쇼, 코미디를 선보였다. 이처럼 다채로운 예술들을 한 화면 속에서 만나게 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당시 뉴욕과 파리, 베를린, 서울 등지에 생중계되었으며 약 2천5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전에서는 과거의 미래였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예술이 매스미디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작가 16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작가들의 작품은 디스토피아 대 유토피아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현재 상황을 재단하기 보다는, 조지 오웰이 비관적 미래를 그리면서도 그의 소설을 통해 지키려 했던 인간성과 백남준이 매스미디어의 긍정적 사용을 역설하면서도 패러디와 날카로운 시선의 작품들을 통해 일깨우려 했던 비판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 02

## 단체 관람 안내

### 1. 단체 관람 예약

인원수는 최소 20명 이상, 최대 100명까지 관람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 10일 전까지 전화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이상 단체의 경우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자유관람 시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솔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체 관람 교사 혹은 인솔자의 사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2. 단체 도슨트 투어 예약

인원수는 20인 이상일 경우 예약이 가능하며, 시간대는 오전(10:00~12:00), 오후(13:00~17:00) 각 1개 단체씩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어 소요시간은 1시간 입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예약 : 031-201-8529 /reservation@njpartcenter.kr

# 03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2014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 학생단체 교육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명	일정	대상	내용	접수방법
학생 단체 프로그램 <오! 슈퍼맨>	2014.9.11(목) ~11.28(금)	초등학생 단체 20~40명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상적인 슈퍼맨의 모습을 표현해본다.	이메일, 전화접수
<미래를 예견하는 자>	오전, 오후 각 1회 운영	중, 고등학생 단체 20~40명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미래 사회를 다른 생각으로 예견한 조지 오웰과 백남준처럼 미래 사회를 예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메일, 전화접수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미술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10월 17일(금), 11월 14일(금) 14:00~15:30	미술관 직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 단체 20~40명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이메일, 전화접수
장애 단체 프로그램 <오! 슈퍼맨>	2014.9.11(목) ~11.28(금) 주중, 하루 1회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 10~20명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슈퍼맨을 만들어본다.	이메일, 전화접수

## 1. 학생단체 교육프로그램

### 1) 오! 슈퍼맨 (초등학생 대상)

- 일시: 9월 11일(목) ~ 11월 14일(금)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오전, 오후 중 1회 운영)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 대상: 초등학생 단체
- 참가비: 1인 3,000원(입장료 포함)
- 개요: 특별 기획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와 연계한 초등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으로 또래집단에서의 친구관계에 관하여 표현활동을 합니다.
- 예약: 이메일 및 전화 예약
- 프로그램 문의: 031-201-8556/8555, edu@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명	오! 슈퍼맨	참가비	1인당 3,000원
기간	9월11일(목)~11월14일(금)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장소	교육실 / 전시장
강사	박희정, 권영경	정원	20~40명
내용	<p>《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 90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참여 작가인 로리 앤더슨은 &lt;오 슈퍼맨&gt;이라는 작품에서 미국 현대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비판하였다.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힘을 가진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래집단에서의 친구관계에 관한 이야기</p>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교육실
강의	20분	전시 소개	교육실
작품 감상	30분	전시 작품 감상	1,2층 전시실
표현 활동	30분	이상적인 친구관계에 관하여 표현하기	교육실
공유	5분	공유 및 정리	교육실

## 2) 미래를 예견하는 자 (중·고등학생 대상)

- 일시: 9월 11일(목) ~ 11월 28일(금)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오전, 오후 중 1회 운영)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 대상: 중·고등학생 단체
- 참가비: 1인 3,000원(입장료 포함)
- 개요: 특별 기획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와 연계한 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 사회 모습을 예견하며 표현활동을 합니다.
- 예약: 이메일 및 전화 예약
- 프로그램 문의: 031-201-8556/8555, edu@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명	미래를 예견하는 자	참가비	1인당 3,000원
기간	9월11일(목)~11월28일(금)	장소	교육실 / 전시장
강사	박희정, 권영경	정원	20~40명
내용	<p>《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 90분)                  백남준의 &lt;굿모닝 미스터 오웰&gt;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래를 바라보는 백남준과 조지 오웰의 시각이 달랐듯이 각자의 생각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예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지 오웰 「1984」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1984년에는 감시 당하고 통제받는 모습을 그린 미래 소설이다.</p>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교육실
강의	20분	전시 소개 및 조지 오웰과 백남준 이야기	교육실
작품 감상	30분	전시 작품 감상	1,2층 전시실
표현 활동	30분	백남준, 조지 오웰처럼 미래사회 모습을 예견해 보기	교육실
공유	5분	공유 및 정리	교육실

## 2.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프로그램

### 미술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고등학생 대상)

- 일시: 10월 17일(금), 11월 14일(금) 오후 2시~3시30분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세미나실
-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 참가비: 1인 3,000원(입장료 포함)
- 개요: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을 둘러보고,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직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약: 이메일 및 전화 예약
- 프로그램 문의: 031-201-8556/8555, edu@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명	미술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가비	1인당 3,000원
기간	10월17일(금), 11월14일(금)		장소	세미나실 / 전시장
강사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정원	20~40명
내용	미술관이란 무엇이며,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술관 직무에 대해 이해하며, 청소년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총 소요시간: 90분)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세미나실
작품 감상	40분	전시 작품 감상		전시실
표현 활동	40분	미술관과 미술관을 둘러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세미나실
Q&A	5분	질의응답		세미나실

### 3. 장애 단체 교육프로그램

#### 오! 슈퍼맨

- 일시: 9월 11일(목) ~ 11월 14일(금)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오전, 오후 중 1회 운영)
-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및 교육실
- 대상: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대상
- 참가비: 1인 3,000원(입장료 포함)
- 개요: 특별 기획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와 연계한 장애학생 단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시 작품을 집중 감상하고, 창작 표현활동을 합니다.
- 예약: 이메일 및 전화 예약
- 프로그램 문의: 031-201-8556/8555, edu@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명	오! 슈퍼맨		참가비	1인당 3,000원
기간	9월11일(목)~11월14일(금) (월~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장소	교육실 / 전시장
강사	이미현, 박희정, 권영경		정원	20~40명
내용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 90분)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 참여 작가인 로리 앤더슨은 <오 슈퍼맨> 이라는 작품에서 미국 현대 사회의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비판하였다.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보고 가상의 슈퍼맨을 만든다.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교육실
작품 감상	30분	전시 작품 감상		1,2층 전시실
표현 활동	40분	가상의 슈퍼맨 만들기		교육실
공유	10분	공유 및 정리		교육실

## 4. 토요일문화학교 -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백남준아트센터의 토요일문화학교인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주 5일제가 전면화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작성한 <종이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 (1968)이라는 논문에서 차용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창작워크숍입니다. 이를 통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하게 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감성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키워 미래를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복합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1) 4강 <소리 데콜라주-소리로 덧칠한 숲> (초·중등학생 대상)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4강 <소리 데콜라주-소리로 덧칠한 숲>은 환경의 구성요소인 소리를 탐색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관 인근 숲으로 나가 자연의 소리를 관찰하고, 이를 본 뜬 전자곤충악기를 직접 제작한 후 다시 숲으로 나가 연주합니다. 자연의 소리에 제작한 악기의 소리를 덧칠하여 소리가 변화된 풍경을 감상하고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간: 2014년 9월 13일 ~ 10월 4일, 매주 토요일
- 시간: 10:00~13:00
- 대상: 11세~15세, 15명
- 강사: 김지연, 배인숙, 이강일
- 장소: 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 참가비: 무료
- 문의: 031-201-8556/ 8555, edu@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차수	단계	내용
1차 (9.13)	오리엔테이션 자연의 소리 듣기와 관찰	미술관 옆 숲에서 숲 환경의 소리 듣고, 관찰하기 숲 속의 소리를 듣고 특징과 차이 발견하기
2차 (9.20)	전자곤충악기 제작하기 I	PCB로 제작한 회로기판에 납땜 작업으로 전자곤 충악기 제작하기 I
3차 (9.27)	전자곤충악기 제작하기 II	PCB로 제작한 회로기판에 납땜 작업으로 전자곤 충악기 제작하기 II
4차 (10.4)	숲 속에서 연주하기	전자곤충악기를 이용한 연주 방법 찾기 각자가 제작한 전자곤충악기로 숲의 소리를 들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기

## 2) 5강 <굿모닝 미스터 백> (초등학생 대상)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강 <굿모닝 미스터 백>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란 위성 방송 쇼에 참여했던 백남준과 그의 친구들처럼 간단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해 라이브 쇼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 기간: 2014년 11월 8일 ~ 11월 29일(매주 토요일)
- 시간: 10:00~13:00
- 대상: 8~13세, 15~20명
- 강사: 오재우 외 2인
- 장소: 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 참가비: 무료
- 문의: 031-201-8556/ 8555, edu@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차수	단계	내용
1차 (11.8)	미디어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오리엔테이션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감상하고 이해하기
2차 (11.15)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 이해하기	라이브쇼를 위한 내용 기획 및 역할 분담
3차 (11.22)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 이해하기	기획된 내용 상세 구성 및 자료 조사
4차 (11.29)	발표하기	결과물 발표회(라이브쇼)

## 5. 백-오웰 클럽: 와레즈 아카데미

‘와레즈 아카데미’는 백남준의 작품 제목으로, 저작권에 반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유통에 대한 인터넷 신조어 ‘와레즈’를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에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처럼 <백-오웰 클럽: 와레즈 아카데미>는 조지 오웰의 시대, 백남준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함께 생각하며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범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 기간: 2014년 9월 17일, 9월 24일
- 시간: 14:00~16:00
- 대상: 성인
- 강사: 사라 그로할라, 마이클 타케오 매그루더, 박상애, 이기준, 안소현
- 장소: 아트센터 세미나실
- 참가비: 무료(매회 예약 필수, reservation@njpartcenter.kr 로 선착순 60명)
- 참가혜택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초대권 증정
- 문의: 031-201-8557, spark@njpartcenter.kr

\* 프로그램 예약은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시	9월 17일 (수) 오후 2시
6강	강연자	- 사라 그로할라(Sarah Grochala, 영국 헤드롱극단 협력 아티스트, 런던대학교 왕립드라마스쿨 강사) - 마이클 타케오 매그루더(Michael Takeo Magruder, 영국 미디어 아티스트,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시각화랩 연구원)
	제목	디지털 더블의 삶
	일시	9월 24일 (수) 오후 2시
7강	강연자	-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 이기준(백남준아트센터 테크니션) - 안소현(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제목	순간을 영원으로: 전자기 신호의 보존에 관하여

# 04

## 특별전

#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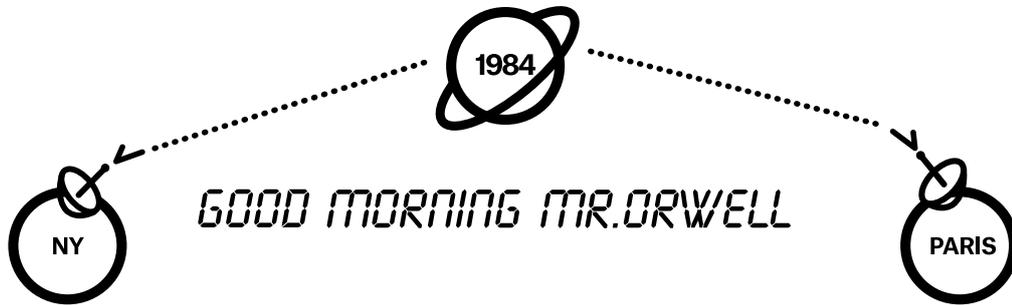
### 기획의도

조지 오웰은 1949년 원거리 통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된 암울한 미래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발표하면서, 1984년이 되면 매스미디어가 인류를 지배하리라는 비관적인 예언을 하였다.

백남준은 이 예언에 대해 “절반만 맞았다”고 반박하면서, 예술을 통한 매스미디어의 긍정적인 사용을 보여주기 위한 위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하였다. 이 기념비적인 텔레비전 쇼는 단순히 백남준의 도전 정신과 스펙터클을 확인하는 자리만이 아니었다. 쌍방향 위성 생중계는 형식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우연성과 즉흥성에 열려 있는 소통 방식이다. 실제로 <굿모닝 미스터 오웰> 라이브 버전을 보면 백남준이 일부러 연출한 방송 사고들과 실제 생중계에서 발생한 통신상의 사고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위성 생중계의 열린 소통 방식은 일방향적인 매스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독재와 언론 조작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쌍방향 위성 생중계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문화적 선입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보는 관객은 익숙한 문화와 낯선 문화를 한 화면에서 보면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방가르드 예술은 난해하다는 편견, 대중예술은 피상적이라는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 결국 백남준이 벌인 이 긍정의 축제는 미디어 독재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주도면밀한 문제제기로 읽힐 수 있다.

2014년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30주년을 맞는 해로, 이 긍정의 축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눈을 들여다 보아야 할 시점이다. 오늘날 위성을 넘어 인터넷을 이용한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은 더 강한 통제와 더 넓은 자유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이 전시는 낱알이 복잡해지고 은밀해지는 통제/자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술이 이 네트워크를 변화시킬 새로운 노드와 링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묻고자 한다.

## 1) 굿모닝 미스터 오웰



위성으로 강자의 자유를 증대시킨다 함은  
곧 약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백남준, '예술과 위성' (1984)

## 주요 작품

백남준(Nam June Paik, 1932-2006, 한국)  
<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 1984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파리의 퐁피두센터, 뉴욕의 WNET 방송국을 연결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기획, 성사시켰다. 로리 앤더슨, 샬롯 무어먼 등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오잉고 보잉고, 톰슨 트윈스 등 대중 가수들이 한 데 어우러진 이 방송은 소통을 중시하는 백남준의 예술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간파하는 백남준의 통찰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빅 브라더가 텔레비전을 지식과 권력을 집중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그린 것에 대해 도전 혹은 대화를 시도하듯 백남준은 이 위성 방송에 오웰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제목을 붙였다. 한국과 독일에서도 생방송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 세계 예술가들을 비롯해 방송국, 미술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예술적, 기술적 사항들을 치밀하게 준비한 백남준의 탁월한 기획력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이후 <바이 바이 키플링(Bye Bye Kipling)>(1986), <손에 손잡고(Wrap Around the World)>(1988)가 제작되면서 위성 프로젝트 3부작이 완성되었다.

## 조지 오웰 George Orwell (1903-1950)



영국의 소설가, 수필가, 언론인, 비평가로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ur Blair)이다. 1903년 영국령 인도 모티하리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성장한다. 인도 제국경찰이 되어 5년간 미얀마에서 근무하였으나 제국주의에 혐오감을 느껴 사임하고 파리를 거쳐 런던으로 간다. 이 시기에 노숙과 접시닢이 생활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후 런던으로 와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1933)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르포' 작가로 주목을 받는다. 이후 탄광 노동자의 삶을 생생히 묘사한 「위긴 부두로 가는 길」을 통해 사회적 조건에 관심을 작가로 살아가게 된다. 1936년 스페인 내전에 의용군으로 참여해서 전쟁 중에 목에 총상을 입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영국으로 돌아와 당시 경험을 생생히 묘사한 「카탈로니아 찬가」(1938)를 발표한다. 파시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지지자였으나 구소련식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신랄한 풍자를 담은 「동물농장」(1945)과 「1984」(1949)를 발표한다. 1950년 폐결핵이 악화되어 46세로 숨을 거둔다.

「1984」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 13쪽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가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상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쩌면 사상경찰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의 선을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을 당하고, 캄캄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그런 생활이 본능적인 습관이 되어 버렸다.”

- 11-12쪽

“어떻게 미래와 소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다르다면 이 수난의 기록은 무의미한 것이 되리라”

- 17쪽

“그의 생각은 이중 사고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미는 것,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을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에 떠올렸다가 다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그래서 ‘이중사고’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조차 이중사고를 사용해야만 한다.”

- 53-54쪽

“얼굴을 무표정하게 꾸미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호흡 역시 신경만 쓰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근거리는 가슴 소리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텔레스크린은 묘하게도 그런 소리를 귀신같이 포착해 댔다.” 111쪽

순결과 정치적 정설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력한 본능의 힘을 축적하여 그것을 추진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이 당원들에게 요구하는 공포와 증오, 광적인 맹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섹스의 충동은 당에게 위험하므로 당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그들은 부모 자식 간의 본능도 비슷한 속임수를 써서 이용해 왔다. 가족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옛날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권장한 반면, 아이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부모와 대립하게 하여 부모를 감시하고 부모의 과오를 보고하라고 가르쳤다. 결국 가정은 사상경찰의 확대 영역에 지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밤낮으로 자기를 잘 아는 밀고자에 둘러싸여 감시를 받고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다.

- 189쪽

원스턴은 빅 브라더의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그 검은 콧수염 속에 숨겨진 미소의 의미를 알아내기까지 사십 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오, 잔인하고 부질없는 오해여! 오, 저 사랑이 가득한 품 안을 떠나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지내온 유랑의 삶이여! 진 냄새가 배어 있는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코 양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잘 되었다. 모든 것이 잘되었다. 투쟁은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

- 417쪽

조지 오웰 「1984」(민음사, 2007)에서 발췌

#### 생각해 보아요

조지 오웰은 미래 사회를 기술을 통해 감시와 통제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백남준은 기술의 발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지 오웰과 백남준은 서로 다른 모습의 미래사회를 예견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여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해 보세요.

## 2)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한 통제와 자유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백남준이 이용했던 위성보다 더 강한 통제와 더 넓은 자유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위성을 통한 '자유의 증대'가 기대와는 달리 '강한 자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백남준의 조심스러운 언급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시스템은 더욱 강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쉽게 전환된다. 이처럼 과거의 미래였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예술이 매스미디어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작가 16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영국으로 망명한 모나 하툼은 <너무나 말하고 싶다>라는 영상에서 불연속적 이미지와 전화선을 통해 연속적인 소리를 전달하는 '슬로우 스캔' 기술을 이용해 위성 송출을 함으로써 이미지는 불완전하게 전달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저항의 태도를 전달한다. 폴 게린과 하룬 파로키는 흥미롭게도 둘 다 1920년대 고전 영화인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상이한 관점에서 패러디 하면서, 오늘날 "비디오"라는 매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정교하게 짚어낸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수많은 작품의 기술적 조력자였던 미디어 아티스트 폴 게린은 <비디오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빨라진 사회의 속도에 마냥 매료되었던 베르토프에 대해 비판적 일침을 날린다. 반면 체코 출신의 다큐멘터리 영상 작가 하룬 파로키는 <카운터-뮤직>에서 베르토프가 촬영했던 카메라 대신, 도시의 감시카메라와 각종 시설 감독용 카메라의 영상을 리드미컬하게 편집하여 21세기 버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만든다. 퍼포먼스와 미디어 아트의 독특한 결합을 실험해온 미국 작가 리즈 매직 레이저는 반(半)-공공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공성을 표방하는 미디어가 사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상황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 주요 작품

엑소네모(Exonemo, 일본)

<수퍼내추럴>, 2009-2014, 비디오 설치



엑소네모는 쎬보 켄슈케(Sembo Kenseke)와 아카이와 아에(Akaiwa Yae)로 이루어진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다. 1996년부터 넷아트, 사운드 비디오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라이브 퍼포먼스, 설치미술 등으로 다양한 미디어 확장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수퍼내추럴>은 전시공간과 일본에 있는 작가 스튜디오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상공간과 실재 공간,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기술,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실험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재조명한다.

리즈 매직 레이저(Liz Magic Lazer, 미국)

<PR(공적인 관계들)>, 2013, 5채널 비디오 설치, 17분



리즈 매직 레이저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영화관이나 뉴스 룸 같은 반(半) 공공 장소에 퍼포머들이 개입하는 상황으로 재구성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일 5채널 비디오 설치 <PR(공적인 관계들)>은 뉴스를 위한 거리 인터뷰 상황을 퍼포먼스와 비디오로 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2014년 9월 13일에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퍼포머들과 백남준아트센터의 관객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쌍방향 온라인 퍼포먼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사우스 코리아로 (From North Carolina to South Korea)>가 예정되어 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인터넷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가들의 제스처와 감정 표현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핑거 포인팅 워커(Finger Pointing Worker, 일본)

<후쿠이치 라이브 캠을 가리키다>, 2011, 1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4분 5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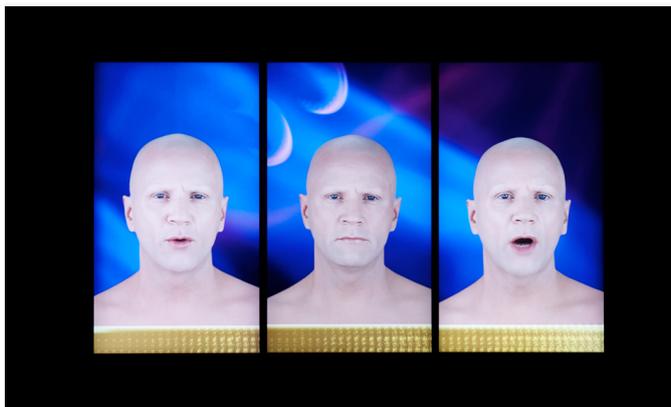
비디오 : 도쿄 전력(주), 편집 : 코타 타케우치



핑거 포인팅 워커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작가로, 이 영상은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도쿄 전력에서 인터넷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설치한 '후쿠이치 라이브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한 것이다. 작가는 그 현장에 가서 원전 노동자의 복장을 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나르시시즘의 대표적 작품으로 불리는 비토 아콘치의 작품 <센터>를 패러디한 제스처를 취했고, 이 장면을 다른 작가(코타 타케우치)가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공격적이면서도 나르시시즘적인 제스처를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원전의 위험성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또 그들의 희생을 영웅시하는 상황을 비판한다.

보른 멜후스(Bjørn Melhus, 독일-노르웨이)

<살인적인 폭풍>, 2008,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



보른 멜후스는 텔레비전의 전형적인 캐릭터로 분장을 하거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법들을 이용하여, 매스미디어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들을 표현한다. 이 영상에서는 긴박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편집하여 음악적인 리듬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처럼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기법들을 비판적으로 파헤치는 한편, 스스로 텔레비전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세대임을 자처하면서 텔레비전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한다.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 독일)

<카운터-뮤직>, 2004,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5분



하룬 파로키는 이 영상에서 영화사의 고전인 지가 베르토프의 영화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패러디 하여, 오늘날의 도시와 영상매체의 관계를 보여준다. 영상에 나타나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모습은 각종 감시 카메라와 도시설비 및 교통체계 관리 등을 위해 촬영한 기능적인 영상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작가는 이런 기능적인 영상들을 리드미컬하게 편집하고, 그 위에 도시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등을 보여주는 문구들을 덧입혀 한편의 영상 에세이로 만든다.

송상희(Sanghee Song, 한국)

<그날 새벽,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2014, 1채널 비디오 설치



송상희의 카메라에 담긴 도시의 모습들은 익숙하면서도 비현실적이고, 이상향을 그리는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는 불완전함을 갖고 있다. 이 비현실적인 영상 위에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등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가져온 문장들이 겹쳐진다. 이와 함께 메시앙의 음악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가 흘러나오고, 드로잉 위로 움직이는 조명을 통해 이제는 사라진 것들과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며 만들어낸 것들이 꿈의 장면들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김태윤&윤지현 (Taiyun Kim & Ji Hyun Yoon, 한국)  
<헬로, 월드!>, 2014, 멀티 미디어 설치, 가변크기



김태윤&윤지현은 작가들이 만든 데이터 신디사이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이동과 흐름, 그리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시각화 한 미디어 퍼포먼스 <헬로, 월드!>를 선보인다. 김태윤&윤지현은 SNS를 통해 모두가 각자의 채널을 지니게 된 오늘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인지 질문한다. 동시에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그를 통해 새로운 분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빅 데이터'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관객의 참여와 기여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는 얼마나 많은 개인의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되며 통제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정보의 주체가 노출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 삶의 모습과 닮은 역설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옥인 콜렉티브 (Okin Collective, 한국)  
<서울 데카당스>, 2013, 1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8분  
출연\_박정근, 임한창



<서울 데카당스>는 법정에 전달된 한 최후진술서에서 출발한다. 사건의 당사자인 P는 북한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를 리트윗하고 '멘션'을 보내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했다는 이유로 2년간에 걸친 구속-수사-재판의 과정을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 P와 P의 트위터를 지켜본 주변인들의 진술은 이 판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며 그가 공판을 위해 작성한 최후진술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당시 25세였던 P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트위터 멘션을 '반포'하며 포레

친구들과 농담하는 것이 일과였고 북한 트위터의 계정 역시 '농담'의 소재로 삼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육인 콜렉티브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주장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마도 법원의 판결은 P의 진술이 문자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P의 태도나 몸짓 혹은 심지어 외모의 무언가가 대한민국 법정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서울 데카당스>는 P가 작성한 진술서를 어떻게 하면 원래의 뜻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전문적인 연기지도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다. '서울 데카당스'는 실제 P의 트위터 계정이기도 하다.

모나 하툼(Mona Hatoum, 영국 - 팔레스타인)

<너무나 말하고 싶다>, 1983, 1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5분



무언가 말하려는 작가의 입을 남성의 손이 틀어막고 있다. 영상은 느리고 끊어지지만, 제목을 반복해서 말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린다. 이 영상은 퍼포먼스를 '슬로우 스캔'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그 이미지를 인공위성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송한 것이다. 슬로우 스캔을 하면 이미지는 매 8초 마다 전송되지만, 소리는 전화선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된다. 작가는 불연속적인 이미지와 연속적인 소리를 함께 먼 곳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억압되고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이부록 (Lee Boorok, 한국)

<워바타 스티커 프로젝트>, 2005-2014

비닐 스티커에 프린트, 300×450cm, 120×480cm



‘워바타’는 ‘전쟁(War)과 ‘아바타(Avatar)의 합성어로, 단순 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으로 되어있다. 작가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워바타의 픽토그램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우편으로 보낸 후, 기존의 기호나 이미지에 스티커를 붙인 뒤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스티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비극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일상이 되고, 그것이 대량복제가 가능한 자본주의적 소통매체인 스티커가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장면은 소소함 가운데 섬뜩함을 불러온다. 하지만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워바타 스티커를 붙여서 만들어낸 이미지들과 그것들이 작가에게 되돌아와 쌓이는 과정은 번뜩이는 풍자와 참여의 힘을 확인하게 한다.

솜팟 칫가소른폰세(Sompot Chidgasornponse, 태국)

<질병과 백년>, 2008, 1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분



솜팟 칫가소른폰세는 태국의 영화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조연출로 활동해온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으로, 영화 <징후와 세기>를 함께 만들었다. 이 영화의 몇 장면은 태국에서 삭제당했는데, 칫가소른폰세는 이 삭제된 장면들을 당국이 제시한 검열의 이유와 함께 모아서 약간 다른 제목을 붙여 한편의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검열의 이유와 함께 영상을 본다 해도, 왜 검열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하긴 어렵다. 오히려 단언적인 문장들은 시적이고 모호한 위라세타쿤의 영상과 대비를 이루면서 검열의 임의성과 부당함에 대해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삭제된 부분들이 모여 한편의 영상작품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검열이 통제할 수 없는 예술의 힘을 증명한다.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 미국) 백남준, <X1, X2>, 1985, 비디오 설치, 112×157×30cm



로리 앤더슨은 가사와 음악을 섞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아티스트다. 백남준 역시 앤더슨이 참여한 <미래의 언어>, <이것이 그 모습이다>라는 두 곡을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주요 퍼포먼스로 기획하여 팝문화와 예술의 소통을 시도했다. 이번 전시에는 앤더슨의 퍼포먼스 비디오로 백남준이 편집작업을 시도한 네 편의 비디오와 설치작품 <X1, X2>가 전시되었다.

질 마지드(Jill Magid, 미국) <증거보관소\_다시 추적한 사건> 2004, 1채널 비디오 설치



작가는 영국 리버풀에 머물면서 감시국에서 기록한 영상들을 편집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증거로 요청되지 않은 감시카메라의 영상은 31일 동안 보관되었다가 지워지지만 증거로 요청되면 별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질 마지드는 감시국에 31일간 요청서를 제출한 후, 빨간 코트를 입고 도시를 배회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받아냈다. 마치 연애편지처럼 작성된 증거보관요청서를 통해 작가는 감시 시스템과 공권력을 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테레오스코프>, 1999, 1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22초



두 개의 평면 이미지를 동시에 볼 때 하나의 입체로 보게 하는 기구인 스테레오스코프처럼, 작품 속의 인물은 분열된 자아를 드러낸다. 소호 엑스타인이라는 이 가공의 인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전형적인 백인으로 작가의 분신이기도 하다. 인물은 혼자가 되고 싶은 욕구와 전보,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분할된 화면 속에서 보여준다. 혼란스러운 요하네스버그의 도시의 단면들이 환상처럼 이어지는 애니메이션이다.

#### 생각해 보아요

모나 하툼의 <너무나 말하고 싶다> 작품에서 말을 하고 싶지만 누군가 입을 막고 있어요. 작가는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제 받았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말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05

## 참고자료

### 참고문헌

백남준 글, 에디트 데커, 이르멜린 리비어 엮음 「백남준 :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백남준아트센터, 2010  
에디트 데커, 「백남준(비디오예술의 미학과 기술을 찾아서)」, 김정용(역), 궁리, 2001  
김홍희, 「백남준과 그의 예술: 해프닝과 비디오 예술」, 디자인하우스, 1992  
조지 오웰, 「1984」, 정희성(역), 민음사, 2007  
조지 오웰, 「나는 왜 쓰는가」, 이한중(역), 한겨레 출판사, 2010  
고세훈, 「조지 오웰 : 지식인에 관한 보고서」, 한길사, 2012

### 작가 자료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2&contents\\_id=5782](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2&contents_id=5782)

핑거 포인팅 워커 Finger pointing worker

<http://www.youtube.com/watch?v=MolubebaFUA>

도쿄전력\_후쿠이치 라이브 카메라, <http://www.tepco.co.jp/en/nu/f1-np/camera/index-e.html>

리무부 아키텍처 Remove Architecture

<https://www.facebook.com/pages/Remove-Architecture/466643383434630>

이부룩

[https://www.facebook.com/pages/Warvata\\_Sticker-Project/1527851857436919](https://www.facebook.com/pages/Warvata_Sticker-Project/1527851857436919)

이부룩, 「워바타 전쟁 그림 문자」, 명상, 2004

이부룩 외, 「기억의 반대편 세계에서 워바타」, 두성북스, 2012

이부룩 외, 「Sticker Project」, 그림문자, 2012

옥인 콜렉티브

옥인 콜렉티브, 「Okin Collective」, WORKROOM, 2012

<http://okin.cc/>

<http://okinokin.tumblr.com/>

뵤른 멜후스 Bjørn Melhus

<http://www.melhus.de/>

로리 앤더슨 Laurie Anderson

<http://www.laurieanderson.com/>

송상희

[www.dalgrian.com](http://www.dalgrian.com)

리즈 매직 레이저 Liz Magic Laser

<http://www.lizmagiclaser.com/>

엑소네모 exonemo

<http://exonemo.com/>

하룬 파로키 Harun Farocki

<http://farocki-film.de/>

질 마지드

<http://www.jillmagid.net/>

<http://www.jillmagid.net/EvidenceLocker.php>

<웹 아트 카페>

히스 번팅 heath Bunting [www.irational.org/heath/\\_readme.html](http://www.irational.org/heath/_readme.html)

조디 Jodi [www.jodi.org](http://www.jodi.org)

더글라스 데이비스 Douglas Davis <http://artport.whitney.org/collection/davis/>

노재운 [www.vimalaki.net](http://www.vimalaki.net)

양아치 [www.yangachi.org/Yokohama\\_UFO](http://www.yangachi.org/Yokohama_UFO) , <http://www.yangachi.org/>

리자 제브라트 Lisa Jevbratt [http://128.111.69.4/~jevbratt/1\\_to\\_1/index\\_ng.html](http://128.111.69.4/~jevbratt/1_to_1/index_ng.html), <http://jevbratt.com/>

올리아 리알리나 Olia Lialina <http://www.teleportacia.org/war/wara.htm>